

주일가정예배

2022년 4월 17일 주일예배

인도: 가족 대표

기 원 인도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죄의 권세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주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두운 골짜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생명과 구원이 강물같이 흐르는 교회에 믿음으로 나왔으니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생명이 죽음을 딛고 일어난 것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열어 놓으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와 생명의 빛을 우리 안에 비추셔서, 우리의 교회와 인생을 통해 더 큰 빛이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160장 다같이

1.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2.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3.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 (후렴)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고린도전서 15:3~8 인도자

3.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 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6.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설 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심』 인도자

기 도 설교자

찬 송 165장 다같이

1.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2.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3.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후렴)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광 고 】

1.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와 각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우크라이나-러시아의 전쟁으로 고통 받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은혜의 시간되도록 기도합시다.
4. 헌금안내

※중앙교회 공식계좌: 기업은행 022-046724-04-01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중앙교회
 송금 예) “이름+감사” / “이름+주일” / “이름+십일”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심

고린도전서 15:3-8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2가지 문제는 죄와 사망인데, 죄는 십자가로 죽음은 부활로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사실(1-34절)에 이어 부활의 본질(35-38절)을 말해 준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 목격자들에게 보이시되, 게바, 열두 제자, 500형제, 야고보, 사도들, 맨 마지막에 바울에게 보이셨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은 변화된 몸을 갖게 되었다. 그는 신령한 몸, 영의 몸, 하늘에 속한 형체,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계셨다. 그러나 부활 이전과 이후에 동일한 정체성을 지니신 동일한 분이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기독교의 구원은 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구속되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몸을 포함한 모든 부분이 타락했다. 따라서 그들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영과 혼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포함하는 구원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신체적, 물질적,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20세기 최고의 설교가이면서 복음주의자였다. 그는 왕실 특별 사제로서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서 스토트는 오직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망을 정복하셨다고 했다. 부활은 초대교회의 케리그마였다. 그렇다면 부활은 어떤 의미일까? ①부활하신 예수님은 단지 살아남아 있는 과거의 영향력이 아니다. 성경은 ‘그가 살아 계시다’라고 하지 않고 ‘그는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고 말한다. ②부활하신 예수님은 소생한 시체가 아니다. 그는 삼일 동안 완전히 죽으셨다가 살아나 세세토록 살아계신다. ③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체험 속에 되살아난 신앙이 아니다. 주관적 사건이 아니라 객관적 사건이다. 부활 신앙 이전에 부활 사건이 있었다. 그렇다면 부활의 증거는 무엇인가? 무덤은 비었고, 시체는 사라졌으며, 많은 사람이 목격했고, 제자들의 삶이 극적으로 변했고, 교회가 출현했고, 교회가 세계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의 확신이며,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의 확신이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퀴리오스)이 되셨다.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스토트는, 예수님이야말로 역사의 중심이라고 주장했다. 시간을 BC와 AD로 양분했고 세계 인구의 1/3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성경의 초점은 예수님이다.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요5:39). 예수님은 선교의 핵심이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물질 안에 신성이 깃들일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창조주 하나님은 물질을 긍정하신다. 하지만 부활의 몸은 이전의 낮은 몸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빌3:21). “우리가 흠에 속한 자(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리라”(고전15:49).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영혼의 불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과 변화다. 부활이 없으면 복음서 마지막 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없는 것이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신앙의 일부분을 잃은 것이 아니라 신앙 전체를 잃는 것이다.